

여호수아기, 사사기, 룯기 결정 연구 개요

표어

우리는 가나안 땅이 예표에 있어서
두 방향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긍정적인 방면에서 가나안은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지니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부정적인 방면에서 가나안은 사탄의 세력들이 있는
사탄의 어둠의 왕국의 하늘 부분을 상징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모든 것을 포함한 땅이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얻고 소유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얻은 직접적인 주님의 임재에 의해서
지켜지고, 다스림 받고, 통제받고, 안내받기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
만일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가 있다면
사물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과 예지와 내적 인식이 있게 된다.
주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원칙에 순종함으로써,
불법에서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에서 구출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대로 하며,
옛 창조물 가운데 있는 사탄적인 혼돈을 정복하고
새 창조물을 위한 신성한 경륜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오늘날의 이기는 이들 중 하나가 되며, 주님의 현재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의 회복 안에서 그분의 현재의 필요를 충족해 드리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룯이 되어, 하나님의 경륜으로 돌이키고
임마누엘의 땅으로 들어가며 그리스도와 결혼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의 오늘날의 필요를 충족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산출해야 한다.

여호수아기, 사사기, 룻기의 감추어진 내재적인 의미

1. 구약의 역사들과 예언들을 연구할 때, 우리에게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해 말하는 성경 전체를 보는 완전한 시야, 완전한 조망이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의 역사들을 제시하시고 구약의 예언들을 보여 주시는 목적에 대해 더 넓은 조망을 얻게 될 뿐 아니라, 그 내재적인 의미를 더 깊이 알게 될 것이다. 구약의 모든 역사들과 예언들의 범위와 중심과 내재적인 의미는 분명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이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위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2. 하나님은 그분의 이러한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해 땅을 위해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위해 땅을 창조하셔야 했다(슥 12:1).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에 따라, 하나님을 접촉하고 받아들이고 담으며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과 내용으로 받아들이도록 영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너무나 슬프게도 이러한 사람이 타락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경륜을 위한 그분의 목적에서 떠나게 되었다. 그 후에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로부터 아브라함이라 불리는 한 사람과 그의 후손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모든 민족들(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분의 사랑스러운 선민인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러한 선민을 산출하시고 조성하시고 형성하셔서 아담 족속을 대치하시는 데에는 사백 년 이상이 걸렸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뿐 아니라 광야에서도 이러한 그분의 선민이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도록 이끄셨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동역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이 땅에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고, 그리스도를 인류안으로 모셔 올 합당한 사람들을 산출할 수 있도록, 훈련받고 징계받고 자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약속된 땅을 차지

여호수아기, 사사기, 룯기

하고, 그리스도를 인류 안으로 모셔 올 합당한 사람들을 산출하는 것은 여호수아기와 사사기와 룯기, 이 세 권의 책에 기록된 구약 역사의 두 가지 중점이다. 이 두 가지 중점, 즉 그리스도를 위해 땅을 차지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 진실한 조상들을 산출하는 것이 여호수아기부터 룯기까지의 역사의 영(靈)이다. 이 두 가지 중점이 바로 구약 역사의 이 부분의 감추어진 내재적 의미이다. 우리는 이것에 관한 분명한 이상을 보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매우 많은 역사가들과 성경학자들과 성경 교사들이 연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 권의 책에 관한 우리의 결정 연구는 공허할 것이다.

3. 주님의 공화로 우리가 이러한 이상을 본다면, 구약 역사의 이 부분은 신약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동일한 유익을 줄 것이다. 이러한 이상의 도움으로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사실상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가운데서 일하시면서 활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심지어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 안에서 운행하시면서 활력을 주시고 그들이 그분과 함께 활력을 얻게 하심으로써,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그리스도와 그분의 증가에 관한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나는 이번 훈련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음의 사항을 보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의 생활, 매일의 행함, 학업, 직장, 사업은 반드시 오늘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놀랍고도 뛰어난 움직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오늘날의 이기는 이들 중 하나가 되며, 주님의 현재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의 회복 안에서 그분의 현재의 필요를 충족해 드리기 위해서는 단지 소위 좋은 형제나 자매가 되어, 교회 집회에 규칙적으로 참석하고 올바르게 처신하며 사람들이 보기에 어느 정도 온전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는 전혀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이기는 이들 안에서 움직이시며 활력을 주시는 그분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과 생활과 오늘날

결정 연구 개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늘날의 역사를 써야 한다! 우리는 활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로서 행군해야 한다!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에 의해! 그분을 위해! 우리는 활력적이어야 한다! 살아 있어야 한다! 활동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오늘날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어,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함으로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오늘날의 롯이 되어, 하나님의 경륜으로 돌아오고 임마누엘의 땅으로 들어가며 그리스도와 결혼함으로써 오늘날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산출해야 한다. 이것이 분명 여호수아기와 사사기와 롯기, 이 세 권의 책의 내재적인 의미이다. 이번 훈련의 결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얻어야 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의 오늘날의 필요를 충족하시는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산출해야 한다.

여호수아기

메시지 1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과 약속과 격려

성경: 수 1:1-9

I. 여호수아는 다음의 방면들에서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 A. 히브리어 이름 '여호수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예수'(히 4:8, 행 7:45)인데, 이 이름은 '여호와 구원자' 혹은 '여호와와 구원'을 의미한다(마 1:21, 민 13:16).
1.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여호수아 곧 우리 구원의 대장으로서(히 2:10, 4:8), 우리를 영광 안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안식 안으로 이끄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는 우리의 온전한 평안과 완전한 만족이신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신다(히 2:10, 4:11, 신 12:9, 마 11:28-30).
 2. 여호수아는 모세로 상징된 율법을 대치하는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수 1:2상, 요 1:17). 바로 율법을 전해 준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가 등장하여 그 백성을 좋은 땅 안으로 이끌었다(수 1:1-4). 여호수아는, 우리의 인도자로서 우리의 안식이신 그분 자신, 곧 좋은 땅의 실재이신 그분 자신에 대한 누림 안으로 이끄시는 주 예수님을 예표한다(신 8:7-10, 12:9, 빌 1:19, 엡 3:8, 골 1:12, 2:6-7, 히 4:8-9, 마 11:28-29).
- B. 아말렉에 대항하는 전쟁에서(출 17:8-16), 아말렉은 타락한 옛사람의 총체인 육체를 예표한다. 여호수아는 육체를 대항해 싸우시고 육체를 죽음에 넘기시는 분 곧 내 주하시고 싸우시는 영이신(롬 8:9-13, 갈 5:16-17, 24), 현재의 실지적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1. 육체의 목적은 우리가 우리의 좋은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누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2.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를 육체에서 구출하여 그 영계로 이끌어, 삼일 하나님의 풍성한 복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 롬 7:17-8:2, 갈 3:14, 엡 1:3-14.
- C. 사십 세의 나이에 여호수아는 갈렙과 연결되었다. 열두 정탐꾼 중 두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그들의 믿음이 되게 함으로써 믿음이 가득한 마음을 갖고서, 하나님의 백성이 좋은 땅을 차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권익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들이었다. 광야에 있던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의 이기는 이들만이 좋은 땅이라는 상을 받았다 — 민 13:30, 14:6-9, 27-30, 롬 10:17, 갈 3:3, 5, 히 11:5-6, 빌 3:13-14, 비교 행 6:5.
1. 민수기 13장과 14장의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불신의 악한 마음을 가졌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은 여호와를 거스르지 말며”(민 14:9)라고 말하면

결정 연구 개요

메시지 1 (계속)

- 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고 경고하였다. 이 말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주님을 거스르는 것임을 가리킨다 — 민 13:31-33, 14:1-3, 6-11, 신 1:26, 32.
- 우리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차지하려면, 불신의 악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주님께 구해야 한다. 이렇게 굳어진 마음을 갖는 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돌아서는 것이다 — 신 1:25-26, 28, 35-39, 9:23, 행 6:5상, 히 3:7-13.
 -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후 5:7). 따라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계속 주목해야 한다(히 12:1-2).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이며, 그분께서 우리 안에 그분 자신을 믿음의 요소로 분배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믿으시는 것이다(갈 2:20, 벧후 1:1).
 -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죄가 불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잘될 것이다. 우리가 자신의 느낌에 따라 살 때, 또한 우리의 믿음의 영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지 않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자 하나님의 유언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신성한 사실들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모욕하며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 신 1:25-26, 히 3:12, 16-19, 4:2, 6, 11:1, 롬 3:4.
 - 우리는 우리의 가책과 느낌과 환경의 구름들로 인하여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새 언약 아래서 살아야 하며, 그 어떤 실패나 약함이나 어둠이나 부정적인 것도 믿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언약을 맺은 백성이며, 각 상황에 맞는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다 — 창 9:8-17, 계 4:2-3, 애 3:22-23, 롬 8:1, 고후 12:9, 딤후 1:10, 2:1, 유 24, 요일 1:9, 고전 1:9.
 - 우리의 영은 새 언약의 모든 유산들의 실재이신, 부활하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가 들어 있는 ‘은행 계좌’이다. 이 모든 유산들은 생명의 영의 법에 의해 우리 안으로 분배되어 우리에게 실재가 된다. 교회 사람들은 언약 아래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언약의 교회라고 불릴 수 있다 — 사 42:6, 49:8, 롬 8:2, 10, 6, 11, 16, 히 8:10, 요 16:13.

II. “너의 일생 동안 아무도 너와 맞서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여 너를 떠나지도 않고 저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강해져라. 그리고 용기를 내라. 왜냐하면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나누어 줄 사람은 바로 너이기 때문이다. 오직 강해지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나의 종

여호수아기

메시지 1 (계속)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반드시 지켜 준행하고,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 수 1:5-7.

- A.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분께서 모세와 함께하셨던 것처럼 그와 함께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위대한 일이었다. 언젠가 주님은 모세에게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출 33:14)라고 말씀하셨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과 매우 가까웠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었다.
- B. 신약에서 예수님의 임재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임마누엘이다(마 1:23, 18:20, 28:20). 실제의 영이시자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곧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신성한 삼일성의 임재이시다(딤후 4:22).
- C.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영을 사용함으로 강해지고 크게 용기를 내어, 좋은 땅으로 상징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오늘날 우리의 유업의 보증으로 누려야 한다. 이 유업의 보증은 다음 시대와 영원토록 우리가 얻을 놀라우신 그리스도리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유업의 견본이다 — 고후 4:13, 엡 1:14, 18, 고후 1:22, 5:5-6상.
- D.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강함과 용기로 취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를 확대해야 한다. 이것은 그분을 최고의 누림으로 체험하는 것이다(빌 1:20, 4:11-13).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라고 선포할 수 있다 — 시 27:1.
- E. 죽음은 한때 우리에게 왕 노릇 하였으며(롬 5:14), 우리는 계속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여 죽음의 노예 상태 아래 있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죽음을 무효화하셨기 때문에(히 2:14-15, 딤후 1:10),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다.
- F. “여호와는 그분의 백성을 버려두지도 / 그분의 유업을 저버리지도 않으시리라.”(시 94:14)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나 두려울 것 없으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히 13:6)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롬 8:31)
- G.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을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은 겁내는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맑은 생각의 영이다(딤후 1:6-7). 우리의 느낌들은 전적으로 거짓말이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강하고 사랑이 충만하며 매우 분명하다는 것을 믿고 선포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강해지고 용기를 내어’(수 1:6) 좋은 땅의 실재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

결정 연구 개요

메시지 1 (계속)

H.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하늘에 속한 이상에 관한 거룩한 말씀으로부터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수 1:7).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합당하게 행함으로써 어디를 가든지 성공을 거두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골 1:10). 이렇게 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다’이시고 우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믿음으로써,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렸다는’ 증거를 지닐 수 있게 된다(히 11:5-6, 창 5:21-24).

III. “이 율법책이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고, 밤낮으로 읊조려 거기에 기록된 모든 것을 반드시 지켜 준행하여라. 그러면 너의 길이 순탄할 것이고, 네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더냐? 강해져라. 그리고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 수 1:8-9.

A.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유되어야 했고, 또한 말씀이 그를 점유하도록 해야 했다(비교 골 3:16). 그는 말씀으로 점유되고 채워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땅을 차지하는 일에서 순조롭고 성공적일 수 있었다.

B.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이행할 수 있는 열쇠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점령하도록 순탄하고 성공하고 강하고 용기를 얻는 열쇠는 그가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림으로 이 말씀을 그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너의 입’이라는 표현은 읊조리는 것이 주로 큰 소리로 말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었음을 보여 준다.

1. ‘읊조리다’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는 그 의미가 풍성하다. 이 단어는 ‘경배하다’, ‘자기 자신과 대화하다’, ‘크게 말하다’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말씀을 읊조리는 것은 주의 깊게 숙고함으로써 말씀을 음미하고 누리는 것이다 — 시 119:15, 23, 48, 78, 97-104, 148, 비교 9-11절.
2. 기도하고, 자신에게 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또한 말씀을 읊조리는 것에 포함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은 하나님의 숨(딤후 3:16)인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것이며, 이렇게 하여 하나님을 주입받고 하나님을 들이마시며 영적인 자양분을 얻는 것이다.
3. 말씀을 읊조리는 것은 소가 풀을 먹듯이 ‘되새김질을 하는 것’(레 11:3)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 우리는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많이 숙고하고 다시 숙고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인다. 우리는 이른 아침에 말씀을 기도로 읽는 동안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아들인 것을 다시 숙고함으로써 자양분을 얻게 된다.

여호수아기

메시지 1 (계속)

- C. 시편 작가는 “저는 주님의 법도들을 읊조리며 / 주님의 길들을 존중하렵니다. / 주님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렵니다.”라고 말했다 — 시 119:15-16.
1. 시편 작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 이 말씀은 그의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이 되었고(렘 15:16),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그에게 항상 있는 영원한 자양분이 되었다(시 119:105, 130).
 2.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림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에 의해 살아나게 된다—“이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 주님은 제가 이것에 소망을 두게 하셨습니다. / 이것이 고통 가운데 있는 저의 위로인 것은 / 주님의 말씀이 저를 살아나게 한 까닭입니다.” — 시 119:49-50.
- D. 말씀을 읊조리는 것은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포괄적이며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하는데, 그것은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 기도와 경배와 누림과 대화와 조아림과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손을 드는 것(시 119:48)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손을 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을 가리킨다(느 8:5-6).
- E. 이런 식으로 우리의 영으로 주님의 말씀을 접촉하며 주님과 지속적인 교통 안에 머물 때, 틀림없이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에 의해 씻겨지고, 따뜻해지고, 신선해지고, 적셔지고, 공급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하는 한 가지 일, 곧 최상의 일은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을 믿고, 그분을 흡수하며,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추구하며, 그분을 얻는 것이다 — 시 27:4, 빌 3:8, 14.
- F. 우리가 참으로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주입받아 하나님으로 빛나고 하나님을 비추어 낼 것이다(고후 3:15-18).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기도 안에 교통하여 주님 안에 잠기리 / 주 영광으로 적셔져 주를 반사하겠네”(영한 동번 찬송가 784장 6절(한국복음서원 찬송가 568장 6절))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는 것이다.
- G. 우리의 주님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포함한 좋은 땅의 실재이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 그분을 누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말함으로 강해지고 용기를 내야 하며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시대가 끝날 때 곧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모든 민족을 그분의 제자로 삼아 왕국 백성이 되게 하는 동안,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 수 1:9, 마 28:20.